

오순절 후 열세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3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8월 2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통일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82 번 (빌립보서 2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살전(1 Thessalonians) 5:21-25</b>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누가 우리를”	찬양대
설 교 Sermon	<b>“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b> <b>(May Your Whole Being Be Kept Blameless)</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20 장 “너 성결키 위해” (통일 21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추구하기 보다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좇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전 43,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개역개정 **살전5:23**)

“May God himself, the God of peace,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NIV **1 Thessalonians 5:2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27 (주일)	8/28 (월)	8/29 (화)	8/30 (수)	8/31 (목)	9/1 (금)	9/2 (토)
본문	삼상19	삼상20	삼상21,22	삼상23	삼상24	삼상25	삼상26
	고전1	고전2	고전3	고전4	고전5	고전6	고전7
	애4 시35	애5 시36	겔1 시37	겔2 시38	겔3 시39	겔4 시40,41	겔5 시42,4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30수 오후7:30)	“영성의 갈”(2)-“성화의 영상” (빌2:12)
토요 새벽기도회 (9/2토 오전6:30)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119:65-72)

지난 주일(8/20) 말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고후 12:7-10)

우리가 생각하는 '약함(또는 연약함)'이란?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또는 인격적 결함이거나 인간관계의 문제가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약함(약점)이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육체의 가시(thorn)요 (심지어) 사탄의 사자(messenger of Satan)라고 칭할 만큼 (무척)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며, 또한 그것을 자랑 삼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까? 이는 그가 자신의 강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오히려)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함(강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깨어지고 실패한 부족함(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 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한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한을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덕분에,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 덕분에,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